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로운 전북 종교계와 함께

김 지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등
도내 4대 종단 지도자들과 첫 간담회 열어
새 발걸음 내딛는 도정에 화합의 한 뜻 모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도내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종교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신교의 백남운 인권선교협회 목사, 불교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원불교 대표 한은숙 전북교구장, 천주교 전주교구 김창신 관리국장 등 4대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4대 종단이 모인 이 자리가 도민화합의 시작이고,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한다며,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도민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섬기며,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개신교 백남운 목사는 "도민이

모두 잘 사는 전북을 위해 종교계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불교의 금산사 일원스님은 "4대 종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다"며 "민선 8기 전북도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원불교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전북이여·아가 협력하는 모습에 미래가 기대된다. 도지사 취임사 중 '마음은 따뜻하게 일은 짝바로 하겠다'는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똘똘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천주교 김창신 관리국장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정을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전북도정에 대해 도내 종교계가 적극 협력으로 화답해 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20일 전주 공에서 열린 전북도 4대종단 대표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4대 종단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관리국장, 백남운 전북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대표, 일원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장,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장, 김관영 도지사, 나유인 세계종교문화축제 집행위원장.

수학여행 다녀온 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

전주 A학교 학생 115명이 확진
A학교, 어제 조기 방학 들어가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15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1~2학년 학생 430여 명은 지난 12~15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학교측은 코로나 의심증상 학생들을 발견, 자가검진을 통해 10명이 양성으로 나와 불

참했다. 이후 또 다시 이상증세를 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주도로 출발했다. 하지만 수학여행 기간 중에 또 이상증세를 보인 인솔교사 2명과 학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전주로 돌아왔다. 이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은 집에서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등교,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PCR 검사) 조사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현재 해당 학교 학생 가운데 상당수 학생에게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자가 격리자는 학생 127명, 교사 13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 감

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지난 19일 학부모들에게 코로나 학사일정을 통보한 뒤, 당초 예정(21일)보다 하루 앞당겨 20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지난 5월 20일 해당 학교는 전북교육청과 수학여행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서 멸종위기식물 II급 대흥란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변산반도국립공원 일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식물인 대흥란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대흥란의 서식은 지난 2016년 이후로 추가 출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인공조림지 자연 숲 복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식지에 자생하는 2개체를 새롭게 발견했다. 대흥란은 7~8월 개화하는 외떡잎식물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로 잎이 없어 광합성을 하지 않아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및 분해물에서 영양분을 얻는 부생(腐生) 방식으로 생존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뉴스

도내 관광지, 태권도원과 연계

도-태권도진흥재단, '태권투어' 상품 출시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20일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과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 여행상품이다. '태권투어'는 태권도 체험, 명소 탐방, 숙박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활용해 이색적인 체험과 휴양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종합여행' 상품으로 지난해 처음 선보였으며, 올해는 도내 주요 관광지인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태권도원이 소재한 △무주군의 적상산사거리와 머루야인 동굴 투어, 덕유산 곤드라 타고 풍광 즐기기, △남원의 관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향공우주전문체 등 개별여행 즐기기, △완주의 놀도파리와 산속등대 여행, △부안 청정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갯벌 생태체험과 누에타운, 청자 박물관 관람하기, △군산 근대역 사박물관과 일원에서 시간여행 즐기기, △임실 치즈체험과 119 안전 체험하기, △순창에서 발효소스 토굴과 장류박물관 맨발 트레킹 강천



산 힐링여행 하기, △세계의 신비진안비이산 산책하기와 명인명품관 관람하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태권투어는 자유여행객과 단체 여행단을 위한 상품으로 구성돼

맞춤형 여행이 가능하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자유여행객은 '자가용 이용 여행상품(마이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단체 관광객은 '여행버스 이용 상품(마이버스)'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상품'이며, 2021년 참가자 만족도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해 이용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끈 상품이다. 판매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운영체제인 티몬 네이버 위메프를 통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원의 성지 '태권도원' 연계 여행상품을 통해 국내외 체류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IMSIL-GUN
임실군